

배터리 산업 발전 위한 '27년 R&D 외길' 지스트 김형진 교수, 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

- LG화학 20년 근무 후 후학 양성... 배터리 소재 연구·인재양성으로 산업 발전 기여



▲ 지스트 에너지융합대학원(학과) 김형진 교수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에너지융합대학원(학과) 김형진 교수**가 우리나라 전지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형진 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LG화학에서 약 20년 간 근무하며 산업 현장과 R&D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뒤 지스트로 자리를 옮겨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이다.

김 교수는 1995년 LG화학 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시절부터 2014년 미국 미시건 주 소재 LG화학 홀랜드 공장의 법인장에 이르는 동안 리튬이온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기반 연구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설계와 제조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여해 왔다.

LG화학 재직 당시 성장동력 기술개발 과제, 초고용량 리튬이차전지용 전해액 개발 과제 등 산업부의 국책과제를 수행한 바 있으며, **세계 최고 용량의 원통형 전지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하여 미국의 델(Dell) 및 HP 노트북에 최초로 적용시키기도 했다.

특히, 미국 미시간 주(州) 정부 그랜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으로 1,20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해외 배터리 공장에서의 자동차전지 및 배터리 팩의 양산에 성공**하기도 했다.

지스트 교수로 부임한 2016년부터는 전지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실리콘 및 전해액과 전극 구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를 이용한 후막전극 제조 방법을 기술이전 하였고 기업 산학과제를 수행하며 전지 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내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올해는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현지법인과 리투아니아의 카우나스 대학(KTU) 에서 에너지 분야의 유럽연합(EU) 과제를 수행** 중이다.

김형진 교수는 “산업계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스트 안팎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업하며 연구개발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다”며 “올해 시작한 유럽연합(EU)의 에너지 분야 과제에 집중해 향후 창출될 새로운 기술과 결과를 이용해 한국의 전지 산업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인 2차전지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체계적인 인력양성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전지산업협회는 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11월 1일 국가 핵심 산업인 2차전지 산업의 성과와 위상을 기념해 <제1회 배터리 산업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올해는 11월 1일(화) 오후 3시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2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식> 행사를 개최하고, 배터리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산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2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독려하고자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했다.